

KMI 주간해운시장 포커스

발간일 2023년 3월 13일
감수 고병욱 해운연구본부장

발행인 김종덕 원장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주간뉴스	01	건화물선	04	컨테이너선	15
탱커선	17	중고선	21	주요 해운지표	24

건화물선 케이프선 운임 12,865달러/일 기록, 중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중국 건설 성수기 진입과 중국 제철소 수익성 개선

컨테이너선 지난주 '컨' 운임지수(SCFI)는 주요 항로 약세로 전주 대비 24.6p 하락한 906.6p를 기록

탱커선 유조선 운임지수(WS)는 전주 대비 27.2p 상승한 98.6 기록, 중국 원유 수요 회복세와 경기 부양 기대심리 반영되며 시황 상승

황수진 해운시장연구 센터장 / zin@kmi.re.kr | 051-797-4635
윤재웅 부연구위원 / jwoong01@kmi.re.kr | 051-797-4633
류희영 전문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915

최건우 해운금융연구 실장 / ak8102@kmi.re.kr | 051-797-4638
이상혁 전문연구원 / sanghyeoke@kmi.re.kr | 051-797-4625
김병주 전문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주간뉴스

바이오 연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

- ▶ 해운산업의 탄소배출 규제에 따라 식물이나 폐기물 등을 이용해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의 사용이 증가함
 - 유럽바이오디젤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EU의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농지는 약 340만ha로 전체 EU농지의 3%에 달하며 이들 연료로 인해 감축된 탄소배출량은 5,100만 톤으로 추정됨(2020년 기준)
 - 바이오 연료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로테르담항에서 사용된 바이오 연료는 2022년 기준 79만 톤으로 2021년 30.1만 톤에 비해 크게 증가함
 - 바이오연료는 대부분 혼합해 사용되는데 화석연료와 바이오 연료를 7 : 3으로 섞는 B-30이 일반적임
- ▶ 환경보호단체는 바이오 연료의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해 보조금 지급 중단을 촉구함
 - 바이오 연료 생산이 아닌 자연 상태로 토지가 전환될 경우 탄소배출 감축량은 6,500만 톤에 달해 바이오 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량보다 더 큼
 - 환경보호단체에서는 로테르담, 싱가포르에서 바이오 연료 사용에 따른 보조금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일, 벨기에 등에서 바이오 연료 생산 제한을 논의중

자료 : <https://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4255/Green-lobby-urges-Europe-to-end-incentives-for-biofuels-production>

최건우 부연구위원

051-797-4638, ak8102@kmi.re.kr

컨테이너선, 사상 최저 속도로 항해중

- ▶ 컨테이너선들은 현재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느린 속도로 항해를 하고 있음
 - Clarkson Research에 따르면 올해 2월 컨테이너선의 평균 운항 속도는 13.72노트(25.4km)에 불과하며, 이는 역대 가장 느린 속도임
 - 컨테이너선 올해 1~2월 운항 속도는 전년동기 대비 3.5% 감소했으며, 이 중 12,000~17,000TEU의 대형 선박은 7% 감소함
- ▶ MPCC(MPC Container Ships)에 따르면 컨테이너 감속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특정 서비스에 대한 속도는 최대 10% 감소한 선단도 있다고 언급함
 - 클락슨에 따르면 이러한 컨테이너선의 감속에 대한 주요 요인은 작년부터 이어진 컨테이너 화물 거래 부진으로 운임이 급락하면서 과잉 공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GSL(Global Ship Lease)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컨테이너선 평균 속도가 1노트 감소하면 유효 공급이 약 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자료: <https://www.tradewindsnews.com/containerships/carriers-hit-the-brakes-as-boxships-sail-at-slowest-rates-ever/2-1-1414468>

김병주 전문연구원

051-797-4628, bjkim17@kmi.re.kr



1. 주간뉴스

러시아, 벌크상품 수출 증가세

- ▶ 올해 1월 러시아는 456척의 건화물선을 통해 2,600만 톤의 벌크상품이 수출되었으며, 22년과 21년 동기에 건화물선 417척과 386척을 통해 2,290만 톤과 1,950만 톤의 수출된 벌크상품 대비 증가함
 - 전쟁에 따른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무역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4,342척의 건화물선을 통해 총 2억 4,100만 dwt(재화중량톤수)의 러시아산 벌크상품이 수출되었으며, 재화중량톤수 기준으로 21년 동기의 수출량 대비 1.1% 감소하는 데 그침
 - 로이드리스트인텔리전스(Lloyd's List Intelligence)에 따르면,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297척의 건화물선이 벌크상품 수출을 위해 러시아에서 인도로 향했으며, 21년 동기 대비 두 배 상승했음. 22년 동기에 이집트, 튀르키예, 중국으로 향하는 건화물선 역시 21년 동기 대비 각각 67%, 44%, 35% 상승함
 - 벌크상품 수출을 위해 러시아를 출항하는 건화물선의 상당수는 핸디선이며, 파나막스선, 캄사르막스선이 그 뒤를 이음. 또한 핸디맥스 및 케이프선 역시 21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 노르웨이의 해운 데이터 업체인 오션볼트(Oceanbolt)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건화물선을 통해 2억 8,090톤의 벌크상품이 수출되어 21-22년 동기의 2억 9,030만 톤 대비 3.4% 감소함
 - 러시아의 벌크상품 수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석탄의 경우 22-23년의 수출량은 1억 9,280만 톤으로 21-22년 동기 대비 1.8% 감소함. 22-23년의 비료 수출은 21-22년 동기 대비 16.9% 감소하여 1,640만 톤을 기록함
 - 케이프선과 파나막스선을 통한 22-23년의 벌크상품 해상물동량은 21-22년 대비 각각 15%와 2% 상승했으나, 수프라막스선 및 핸디선의 경우 올해 해상물동량은 이전 기간 대비 각각 5%와 18% 하강함

자료: <https://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4189/Bulk-exports-from-Russia-remain-elevated>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호주, 올해 기록적인 밀수출 전망

- ▶ 호주농업자원경제국에 따르면 22-23 회계연도(7월초-6월말) 기준으로 올해 호주산 밀 수출량은 2,800만 톤으로, 21-22년의 밀수출량인 2,600만 톤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봄 이상기후로 인한 호주 동부의 평균 이상 강우량으로 인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으리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홍수에 영향이 미치지 않은 지역의 풍작으로 호주의 총 밀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경우, 호주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저렴한 운임과 함께 아르헨티나 인도 우크라이나산 밀의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호주산 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전 세계 옥수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사료용 밀 수요 증가 역시 호주산 밀 수출을 증가를 부채질함. 이러한 밀 수출 증가는 파나막스선, 수프라막스선 및 일부 핸디선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분석됨
- ▶ 이탈리아의 선박 중개업체인 반체로코스타(Banchemo Costa)에 따르면 22-23년의 호주산 밀 수출액은 142억 달러로 전망되며, 21-22년의 113억 달러 대비 25% 상승함

자료: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ukraine-doesnt-plan-curb-202324-wheat-exports-govt-official-2023-03-02/>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1. 주간뉴스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로 향하는 원유 수출 물량 증가

- ▶ 러시아가 자국산 원유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위해 중동의 산유국인 아랍에미레이트(UAE)에도 원유를 수출해온 것으로 확인됨
 - 케이플러, 레퍼니티브 등 에너지 시장 분석 기관들의 유조선 운항 추적 기록을 통해 적어도 150만배럴의 러시아산 원유가 UAE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됨
 - 주요 원유 수출국인 UAE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은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중동 국가들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 ▶ 러시아 원유의 대 UAE 수출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지난해 4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케이플러에 의하면 첫 수출은 2019년 시작됐고 지난해 4월부터 수출 물량이 대폭 증가했으며, 레퍼니티브는 UAE로의 첫 수출이 지난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수출량 증가 시기를 지난해 4월 이후로 추정함
 - UAE는 상당한 양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 원유를 수출용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OPEC+ 내에서도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russian-crude-oil-heads-uae-sanctions-divert-flows-2023-03-06/>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미국, 이란 원유 수출 제재 강화의 일환으로 제재 회피 기업 대상으로 추가 제재 발표

- ▶ 미국 정부가 이란의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 제한을 회피한 기업 6곳과 관련 선박 20척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발표함
 - 지난 2일, 미 국무부 장관은 "미국은 이란의 에너지 수출을 크게 줄이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란의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판매, 운송하는 자들을 제재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발표함
 - 제재 명단에는 중국, 이란에 본사 소재지가 있는 기업 각 2곳, UAE와 베트남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 각 1곳으로 이들의 미국 내 재산은 모두 동결되고, 거래도 전면 금지됨
- ▶ 국무부의 이번 추가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란 핵 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에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됨
 - 뉴욕 주재 이란 대표부는 "바이든 행정부는 전 미국 정부가 실패한 최대의 압박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미국의 제재를 비난함
 - 2018년 당시 미국은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복원을 추진했으나 교착상태가 지속된 이후 미 정부가 대이란 제재 강도를 다시 높이고 있음

자료: <https://www.reuters.com/world/new-us-sanctions-target-iranian-shipping-petrochemicals-2023-03-02/>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2. 건화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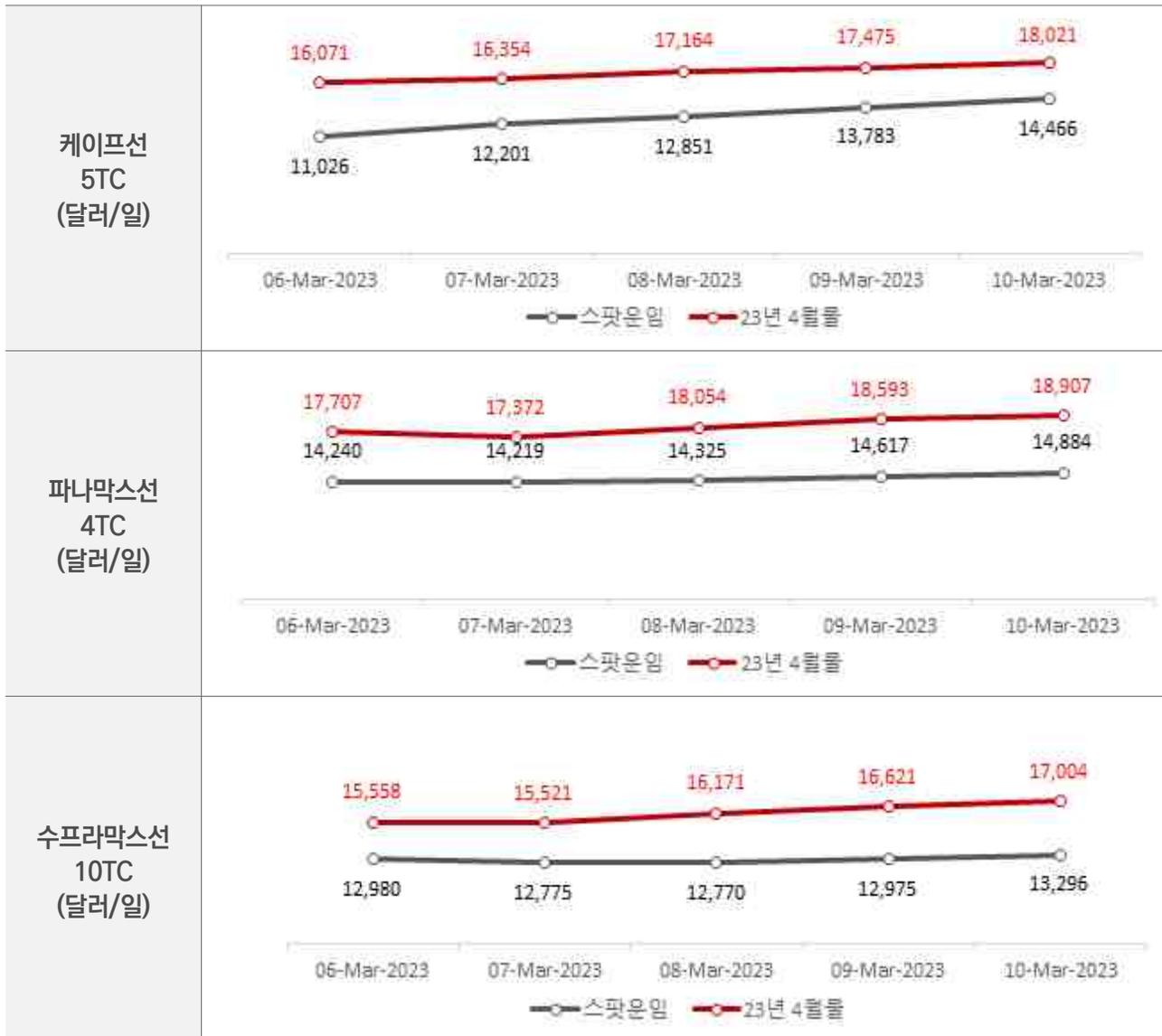
황수진 전문연구원 | zin@kmi.re.kr | 051-797-4635

1 주간평균운임

구분	3월 2주						
	주간평균운임	전주대비차이	3월말 FFA 주간평균가격		전주 대비 차이		
케이프선 5TC (달러/일)	12,865	▲ 5,312	70.3 %	17,017	▲ 3,296	24.0 %	
파나마스선 5TC (달러/일)	14,457	▲ 1,184	8.9 %	18,127	▲ 991	5.8 %	
수프라막스선 10TC (달러/일)	12,959	▲ 435	3.5 %	16,175	▲ 303	1.9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KMI

▲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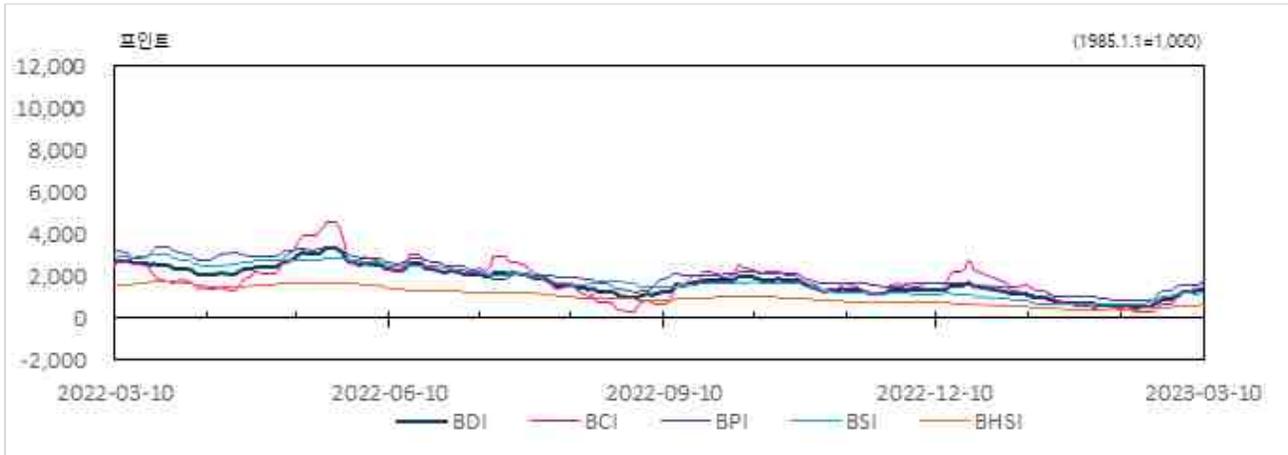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건화물선 운임지수



자료: Clarkson

건화물선 운임

(운임지수: 포인트, 선형별 운임: 달러/일, 1년 용선료: 달러/일, 선형별 운임 평가치: 달러/일)

		3월 2주	전주대비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건화물선 시장(현물)¹⁾									
운임지수	BDI	1,337	261	530	1,424	865	965	3,369	1,934
선형별 운임	케이프(5TC)	12,865	5,312	2,246	14,466	7,257	2,505	38,169	16,177
	파나마스(5TC)	14,457	1,184	7,277	14,884	10,245	10,956	30,746	20,736
	수프라막스(10TC)	12,959	435	6,874	13,296	8,918	11,685	33,366	22,152
	핸디(7TC)	11,009	1,046	7,763	11,361	8,864	11,941	32,166	21,337
1년 용선료	케이프	19,250	1,875	15,625	19,750	17,238	10,125	23,000	16,591
	파나마스	18,000	750	12,500	14,125	13,313	9,625	16,125	12,537
	수프라막스	16,000	250	9,875	10,625	10,263	8,250	12,500	10,356
	핸디	12,625	250	8,063	8,563	8,394	7,313	9,250	8,435
건화물선 시장(FFA)									
		4월물		2분기물		2023년물		2024년물	
		3월 2주	전주대비	3월 2주	전주대비	3월 2주	전주대비	3월 2주	전주대비
선형별 운임 평가치	케이프(5TC)	17,017	3,296	18,204	1,583	16,076	449	16,189	-25
	파나마스(5TC)	18,127	991	18,148	795	15,016	176	15,016	176
	수프라막스(10TC)	16,175	303	16,225	194	13,732	61	13,170	-35
	핸디(7TC)	14,738	82	14,654	-214	13,217	-310	12,783	-98

주: 운임지수, 선형별 운임, 1년 용선료는 해당 주 평균값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원자재 가격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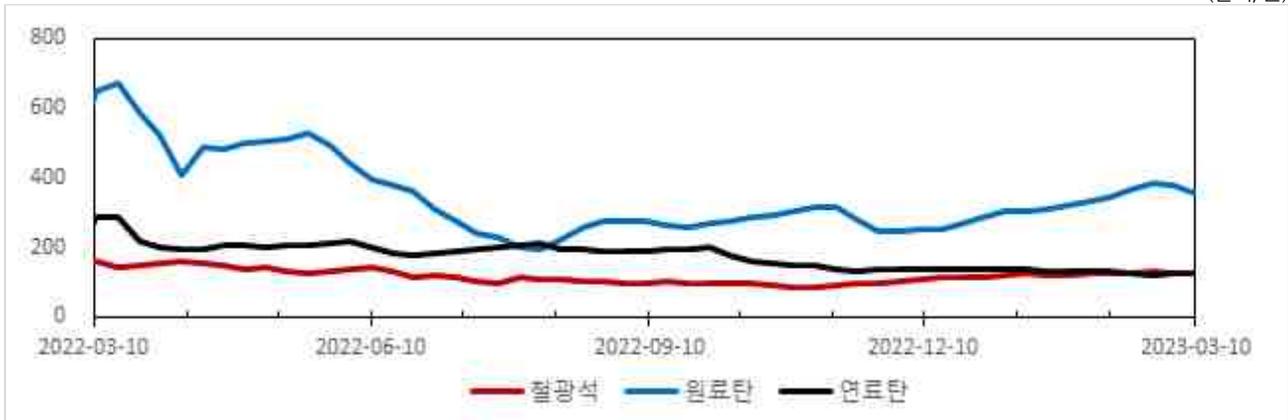
구분	2023년		전주 대비 차이			2022년			
	3월 2주	3월 1주				3월 2주	연평균	최저	최고
철광석	127.2	125.0	▲ 2.2	1.8	%	145.1	120.3	82.4	159.8
원료탄	357.2	377.0	▼ -19.8	-5.3	%	490.3	365.0	196.1	670.1
연료탄	122.7	124.7	▼ -2.1	-1.7	%	190.3	179.1	107.5	288.2
대두	560.4	555.8	▲ 4.6	0.8	%	611.8	569.4	503.5	638.0
옥수수	249.1	251.6	▼ -2.5	-1.0	%	287.4	273.1	231.6	319.9

자료: Clarkson,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상승 ▼ 하락 - 혼조

철광석 및 석탄 가격 추세(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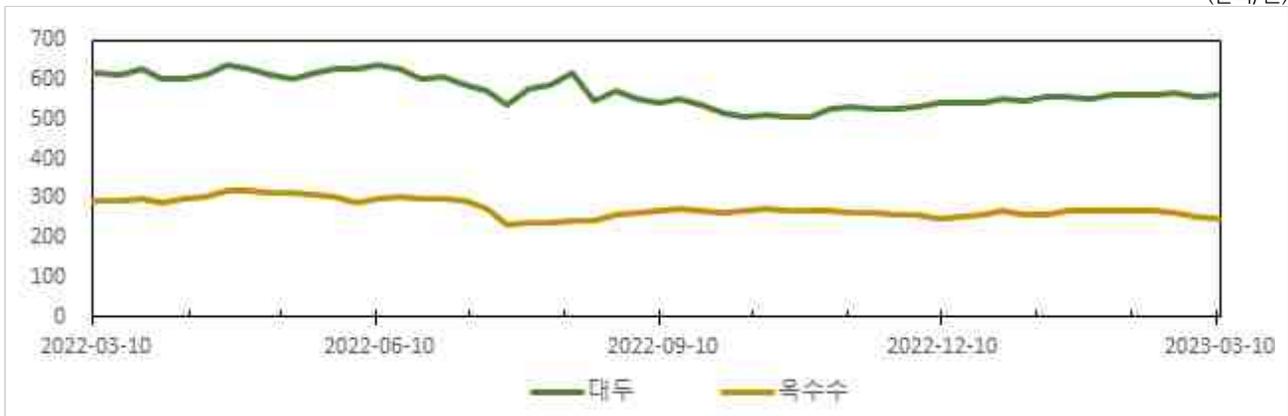
(달러/톤)



자료: Clarkson

곡물가격 추세(주간)

(달러/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3 케이프선-동향분석

케이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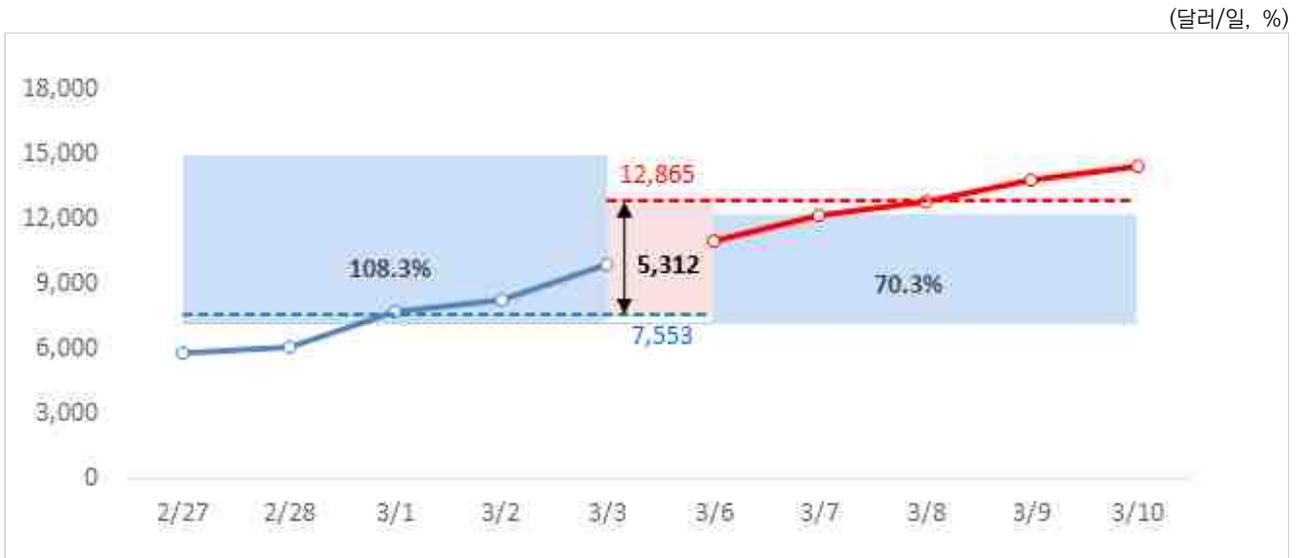
(운임) 케이프선 운임이 전주(3월 1주) 대비 70.3% 상승한 12,865달러/일을 기록함

- 철강 원재료에 대한 중국의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운임이 상승함

(동향) 중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중국 건설 성수기 진입과 중국 제철소 수익성 개선

- 중국 양회 폐막(13일) 전까지 중국 리오프닝,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하며, 운임 상승을 이끌었음
- 중국의 건설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철강에 대한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운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제철소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제철소가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강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3월 2주 중국 용광로 가동률이 88.03%를 기록함
- 철광석 등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3월 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가 철광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하는 등 시장에 철강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케이프선 운임

(BC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3월 2주	3월 1주	전주대비차이	
BCI	1,551	911	▲ 640	70.3%
스팟운임(5TC)	12,865	7,553	▲ 5,312	70.3%
용선료	6개월	21,250	▲ 3,750	21.4%
	1년	19,250	▲ 1,875	10.8%
	5년	17,250	▲ 500	3.0%
FFA	4월물	17,017	▲ 3,296	24.0%
	2분기물	18,204	▲ 1,583	9.5%
	23년	16,076	▲ 449	2.9%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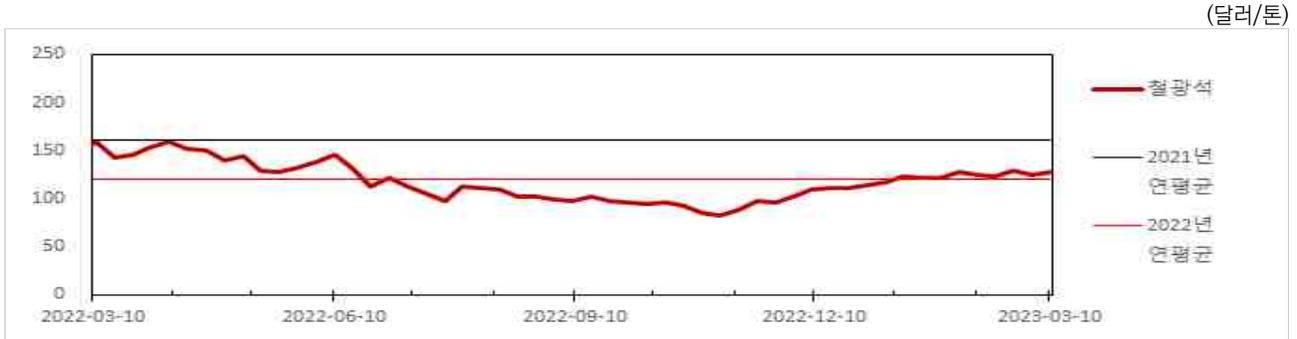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케이프선-동향분석

철광석 가격 : 전주 대비 1.8% 상승한 127.2달러/톤 기록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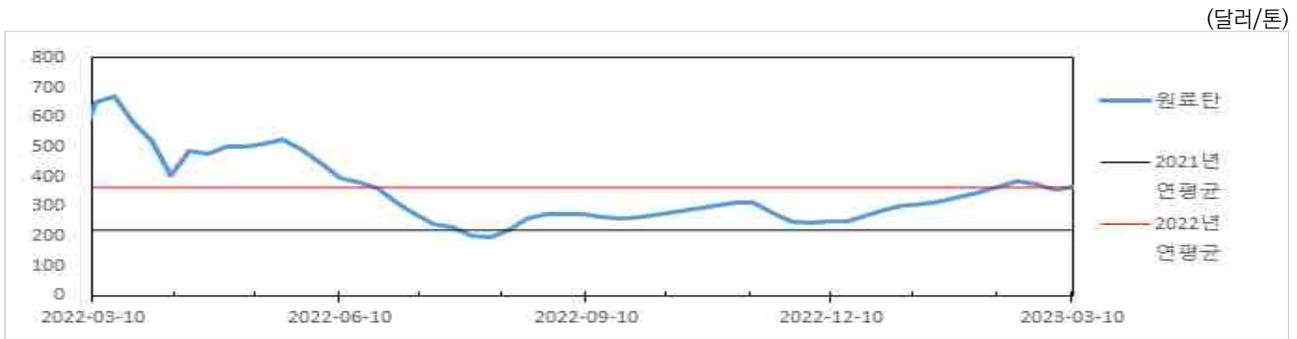
구분	철광석 가격	전주대비차이		
2월 3주	123.6	▼ -0.4	-0.4	%
2월 4주	129.6	▲ 5.9	4.8	%
3월 1주	125.0	▼ -4.6	-3.5	%
3월 2주	127.2	▲ 2.2	1.8	%

(달러/톤)

자료: Clarkson

원료탄 가격 : 전주 대비 5.3% 하락한 357.2달러/톤 기록

원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구분	원료탄 가격	전주대비차이		
2월 3주	366.0	▲ 19.5	5.6	%
2월 4주	385.0	▲ 19.0	5.2	%
3월 1주	377.0	▼ -8.0	-2.1	%
3월 2주	357.2	▼ -19.8	-5.3	%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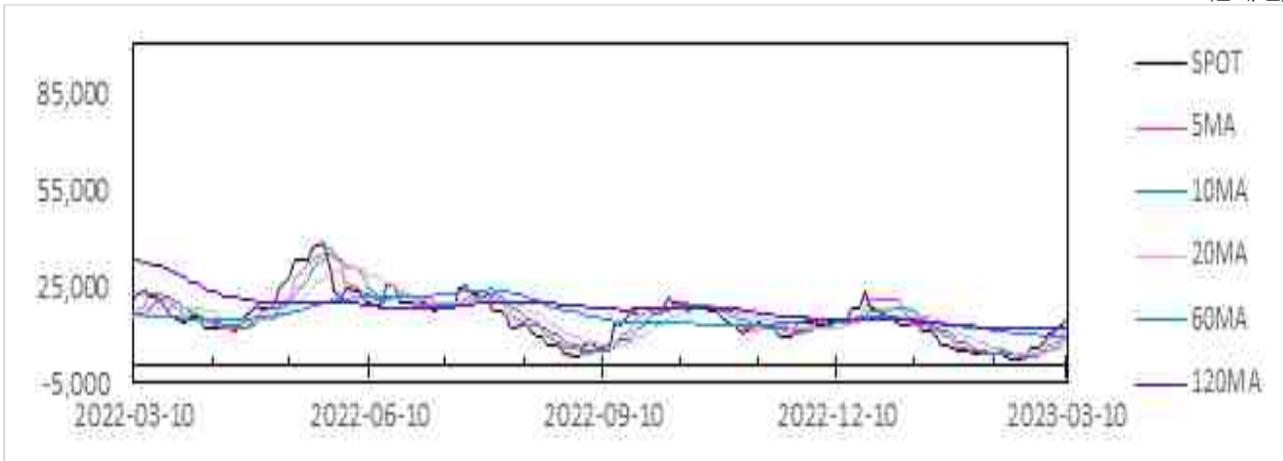
자료: Clarkson



3 케이프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파나마스선-동향분석

파나마스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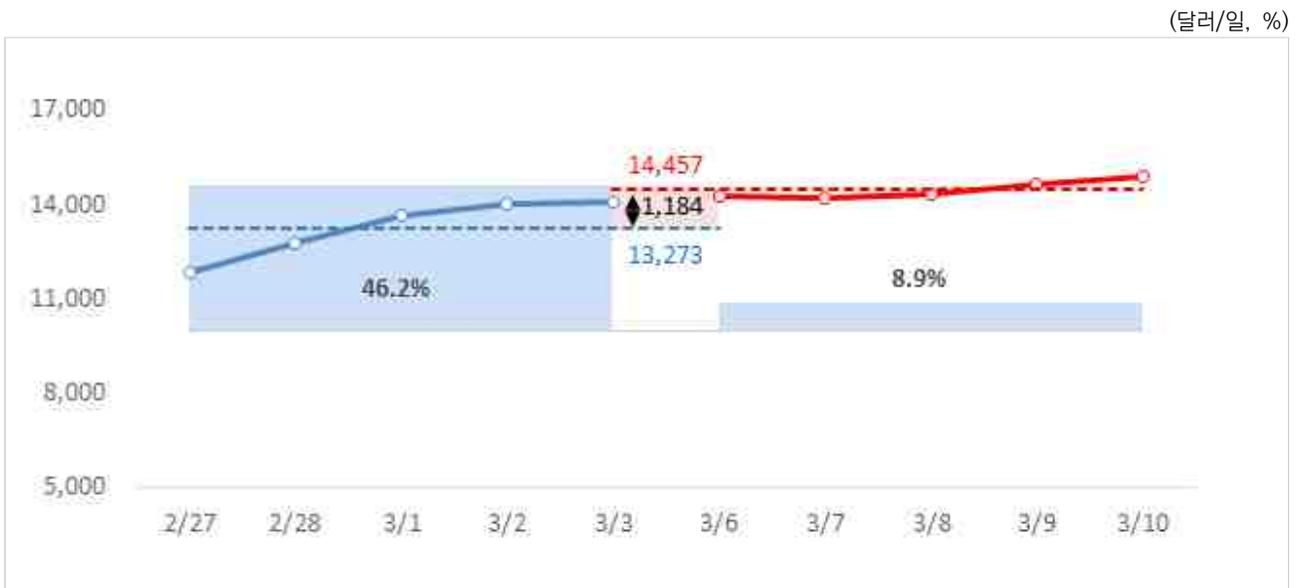
(운임) 전주 대비 8.9% 상승한 14,457달러/일 기록

- 곡물 수요 증가가 운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동향) 인도산 옥수수 수요 증가, 브라질 곡물 수확량 역대 최대 기록 전망

- 브라질 곡물 수확 일정이 폭우로 인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량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수확량이 가뭄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도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파나마스선 운임

(BP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3월 2주	3월 1주	전주대비차이		
BPI	1,606	1,475	▲	132	8.9 %
스팟운임(5TC)	14,457	13,273	▲	1,184	8.9 %
용선료	6개월	18,625	▲	750	4.2 %
	1년	18,000	▲	750	4.3 %
	5년	14,875	14,550	▲	325
FFA	4월물	18,127	▲	991	5.8 %
	2분기물	18,148	▲	795	4.6 %
	23년	15,016	14,840	▲	176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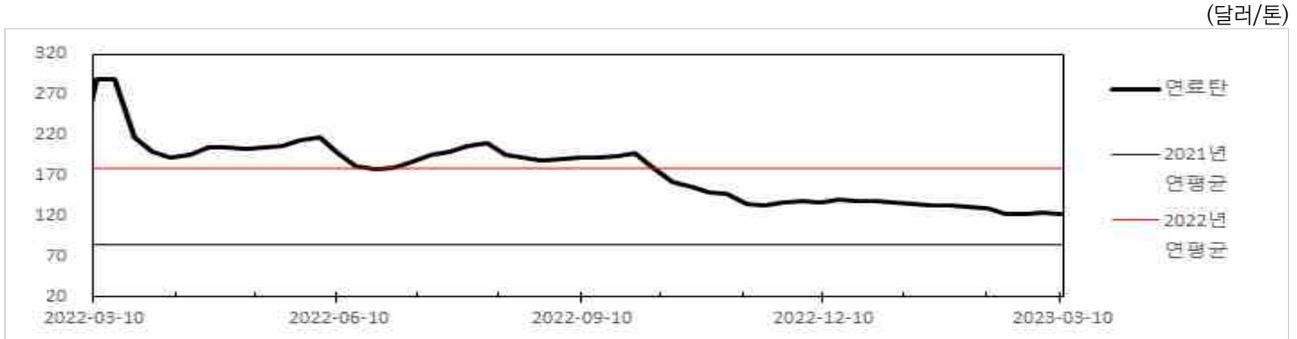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파나마스선-동향분석

연료탄 가격 : 전주 대비 1.7% 하락한 122.7달러/톤 기록

연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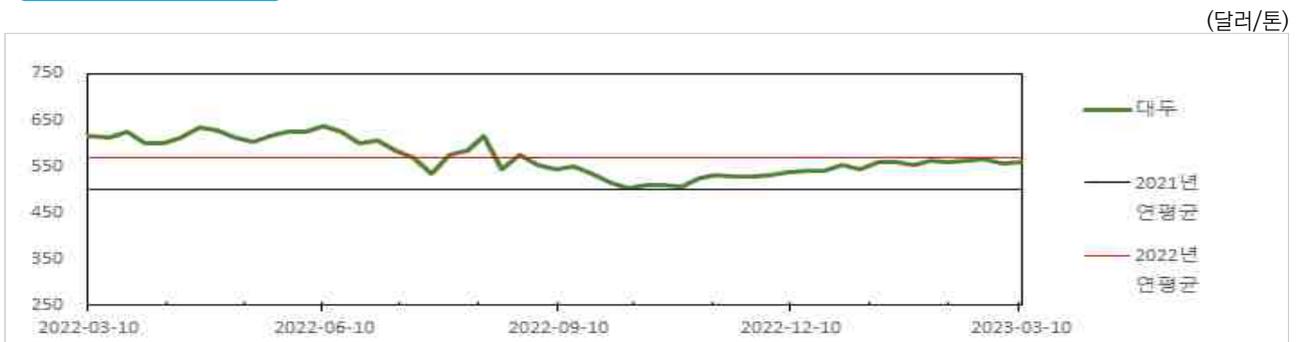
구분	연료탄가격	전주대비차이	
2월 3주	122.7	▼ -6.8	-5.2 %
2월 4주	121.8	▼ -1.0	-0.8 %
3월 1주	124.7	▲ 3.0	2.5 %
3월 2주	122.7	▼ -2.1	-1.7 %

(달러/톤)

자료: Clarkson

대두 가격 : 전주 대비 0.8% 상승한 560.4달러/톤 기록

대두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구분	대두 가격	전주대비차이	
2월 3주	562.9	▲ 3.1	0.5 %
2월 4주	565.1	▲ 2.2	0.4 %
3월 1주	555.8	▼ -9.3	-1.6 %
3월 2주	560.4	▲ 4.6	0.8 %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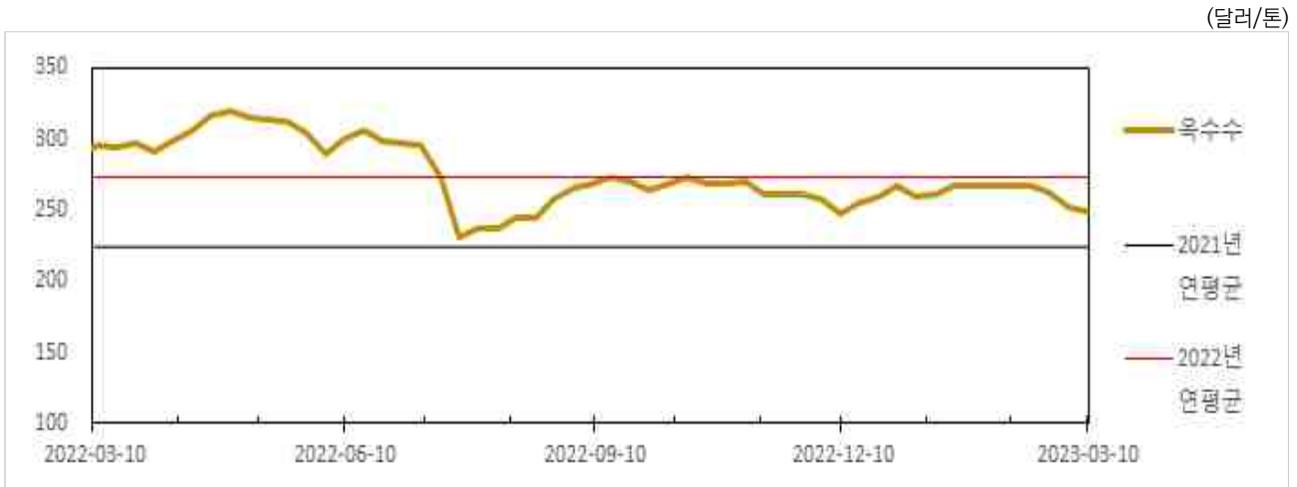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3 파나마스선-동향분석

옥수수 가격 : 전주 대비 1.0% 하락한 249.1달러/톤 기록

옥수수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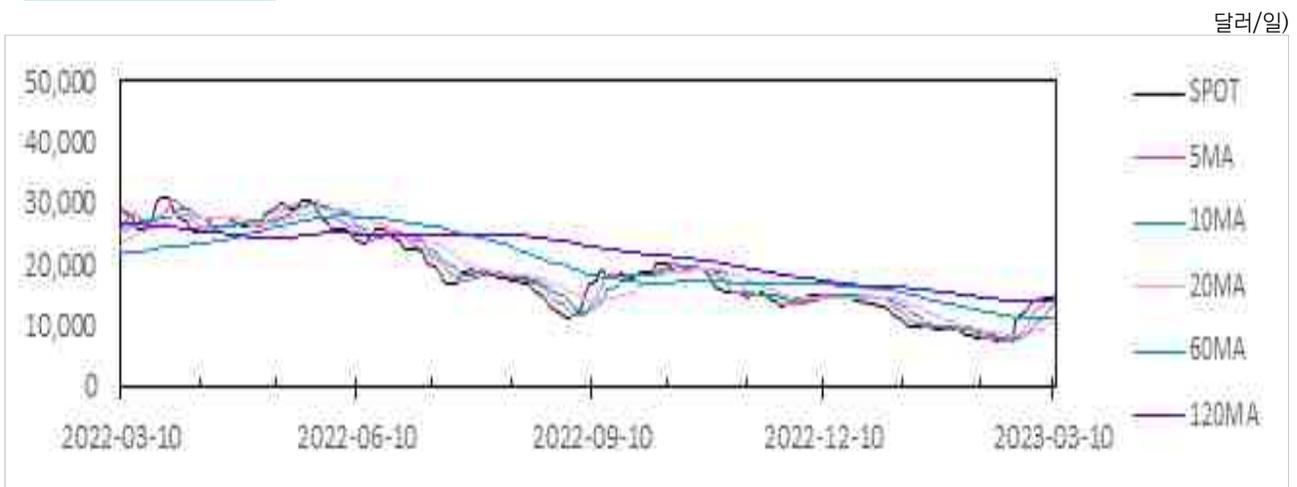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구분	옥수수 가격	전주대비차이		
2월 3주	267.5	▲ 1.1	0.4	%
2월 4주	262.3	▼ -5.2	-2.0	%
3월 1주	251.6	▼ -10.6	-4.1	%
3월 2주	249.1	▼ -2.5	-1.0	%

3 파나마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수프라막스선-동향분석

수프라막스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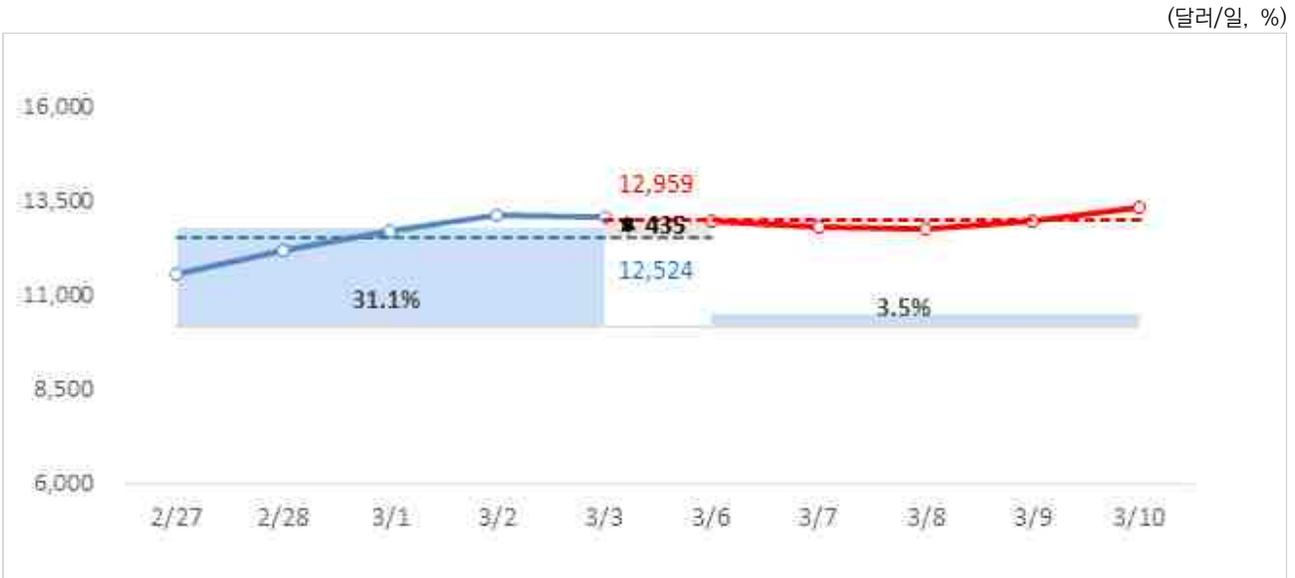
(운임) 전주 대비 3.5% 상승한 12,959달러/일 기록

- 석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운임 상승이 지속됨

(동향) 인도 때 이른 폭염에 연료탄 수요 증가, 밀 생산량 감소 우려에 수입 한시적 허용 가능성 제기

- 인도 정부가 전력난에 대비해 석탄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 인도기상청이 3월과 5월 사이에도 '이상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으며, 지난해 3~4월에도 '봄철 이상 폭염'이 발생해 석탄 부족 사태에 직면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전력난에 대비해 석탄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
- 로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이상 기후로 인해 인도의 밀 수확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인도의 밀 재고량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밀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수프라막스선 운임

(BS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3월 2주	3월 1주	전주대비차이	
BSI	1,178	1,138	▲ 40	3.5 %
스팟운임(10TC)	12,959	12,524	▲ 435	3.5 %
용선료	6개월	16,000	▼ -125	-0.8 %
	1년	16,000	▲ 250	1.6 %
	5년	12,500	-	- %
FFA	4월물	16,175	▲ 303	1.9 %
	2분기물	16,225	▲ 194	1.2 %
	23년	13,732	▲ 61	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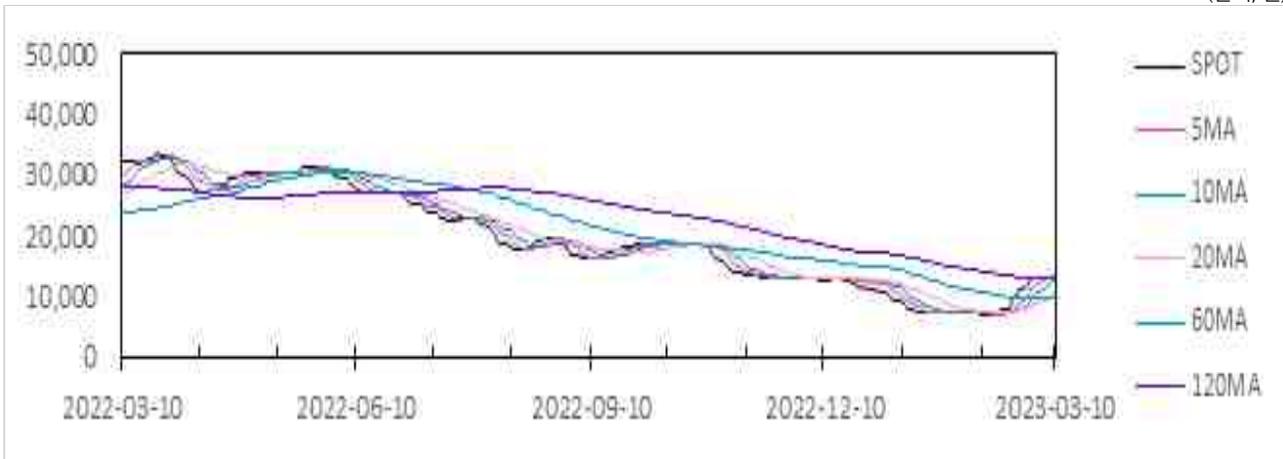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3 수프라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컨테이너선

김병주 전문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동향분석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전주 대비 24.5p 하락한 906.6p를 기록

(운임) 컨테이너 운임 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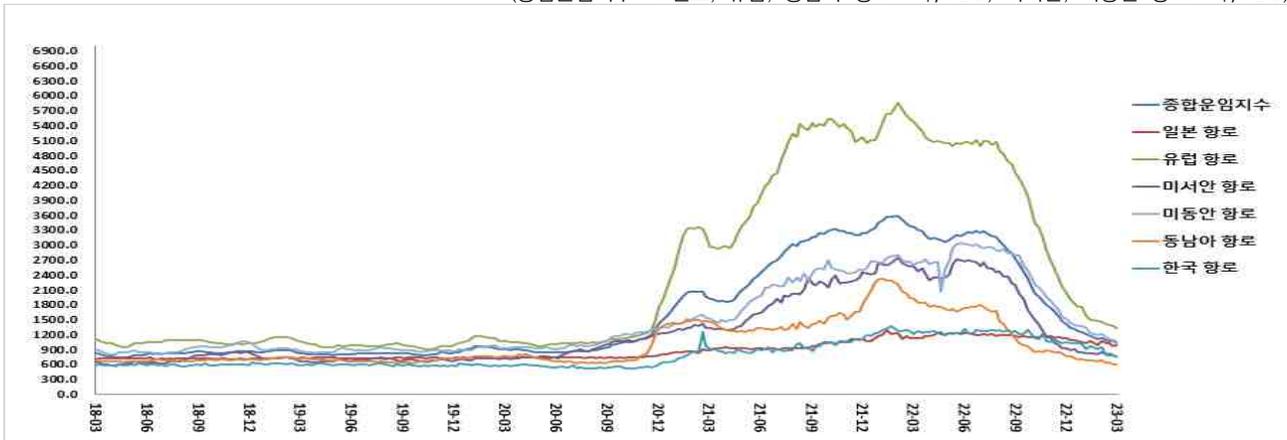
-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아시아-미 동부 항로를 비롯한 주요 항로 운임 약세로 전주 대비 24.5p 하락한 906.6p를 기록함

(현황) 컨테이너 운임 약세 지속 전망

- 올해 1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동기 대비 9.9%, 전월 대비 5.6% 감소하였으며, 이 중 아시아-북미 물동량은 전년동기 대비 23.4% 감소하였지만 전월 대비 1.5% 소폭 증가함(Container Trades Statistics)
- 금년부터 많은 양의 신조 선박이 인도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올해 컨테이너선 공급 증가율은 8.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화물 수요 증가량은 1.4%에 그쳐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Alphaliner)

컨테이너 운임지수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컨테이너 운임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한국, 일본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3월 2주	전주대비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컨테이너선 시장										
운임	종합운임지수	SCFI	907	-24.5	907	1,061	987	1,107	5,110	3,410
		유럽항로	865	0.0	865	1,050	944	1,047	7,797	4,846
		미서안항로	1,163	-37.0	1,163	1,414	1,302	1,418	8,117	5,656
		미동안항로	2,194	-127.0	2,194	2,845	2,568	3,096	11,833	8,514
		한국항로	200	-2.0	200	238	219	225	456	321
		일본항로	328	0.0	317	340	330	281	362	320
		동남아항로	180	3.0	150	180	162	189	1,537	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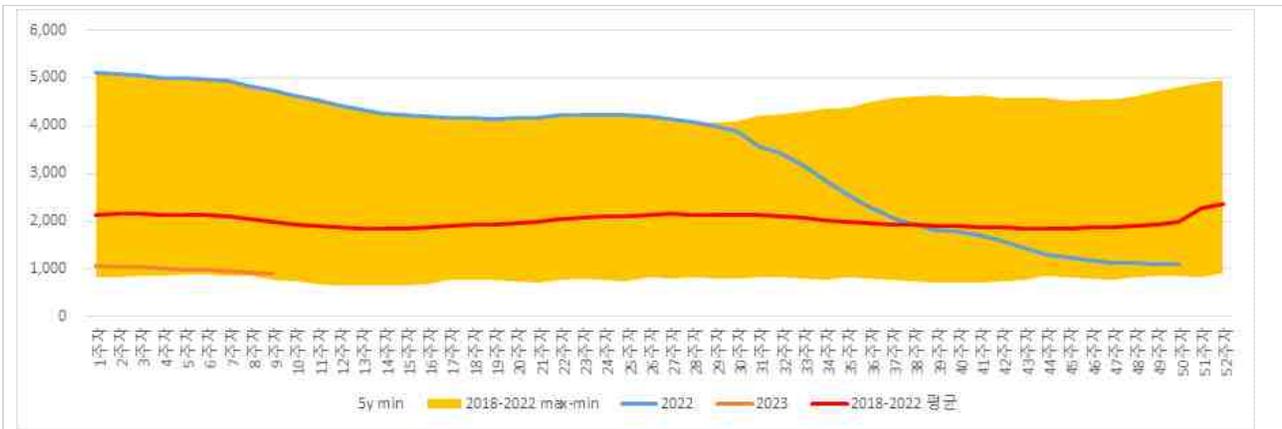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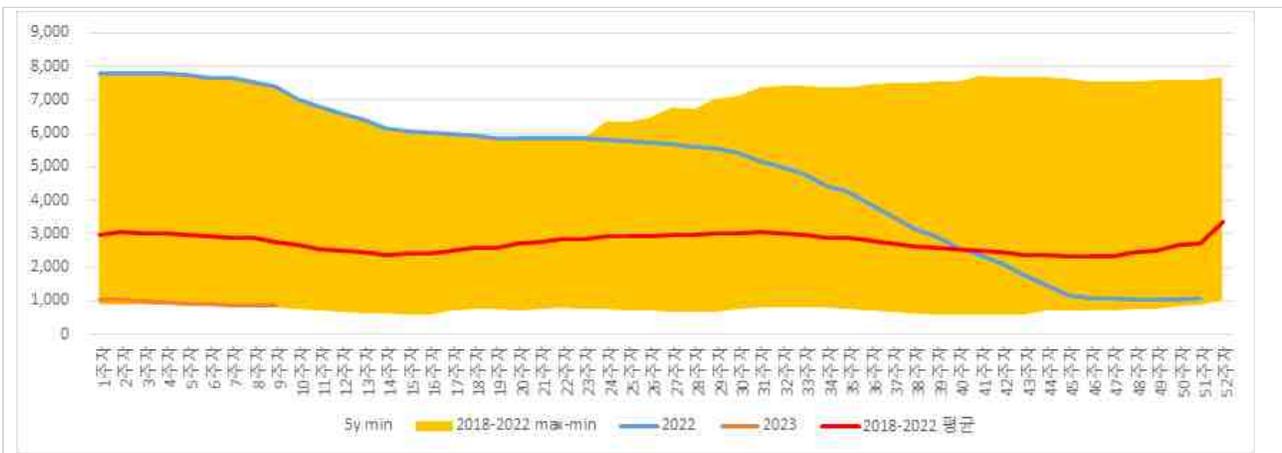
2 운임전망

| 3월 3주(23.3.13~23.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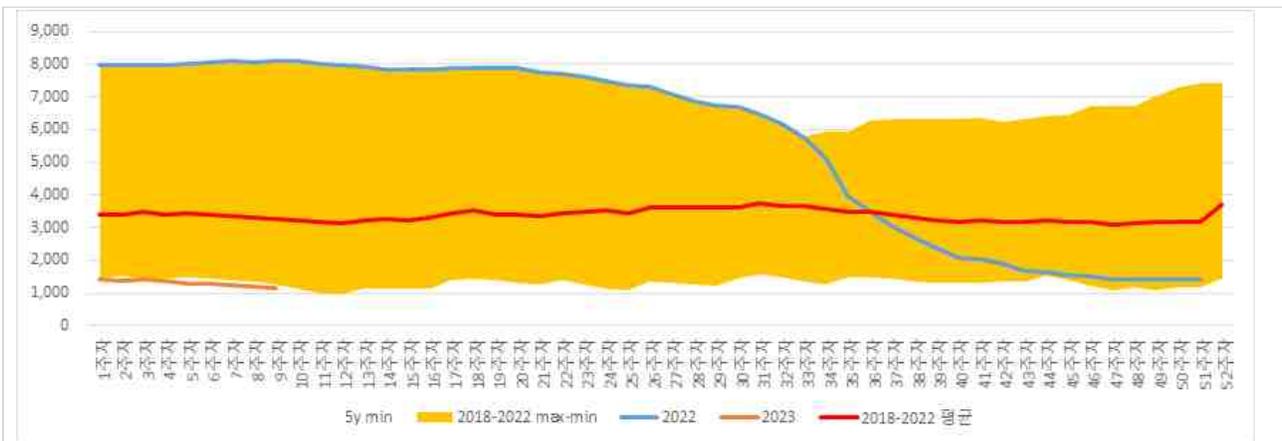
SCFI 지수는 약보합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유럽운임은 약보합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북미운임(서부)은 약보합 기록할 것으로 전망





4. 탱커선

류희영 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643

1 유조선-동향분석

유조선 WS(VLCC World Scale) : 전주 대비 27.2p 상승한 98.6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상승세를 보임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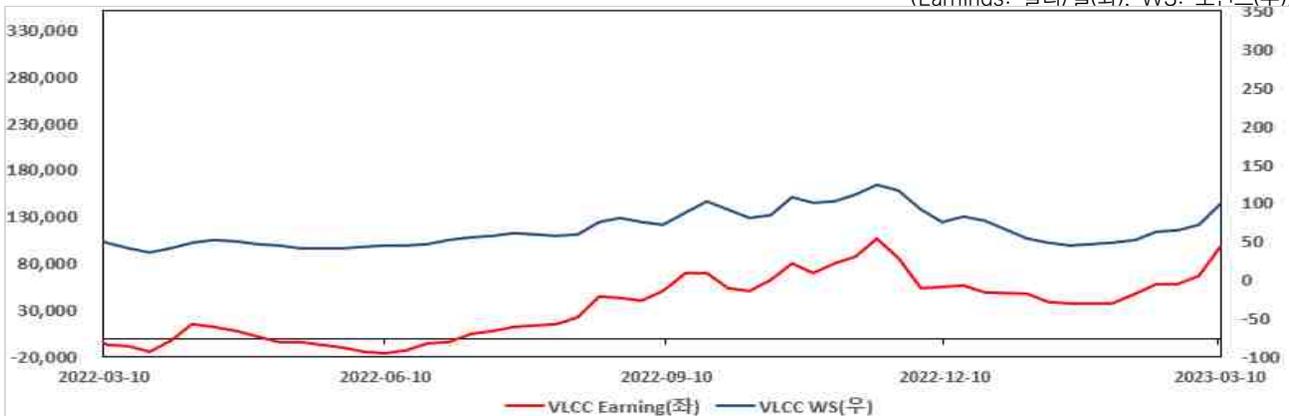
구분	3월 2주(WS)		전주 대비 차이	
중동-중국 항로(TD3C)	98.6	▲	27.2	38.1 %
Ras Tanura(중동) - Loop(미 걸프만) VLCC 280K	60.0	▲	17.0	39.5 %
Ras Tanura(중동) - Ningbo(중국) VLCC 270K	48.0	▲	23.0	31.9 %
Bonny Off(서아프리카) - Ningbo(중국) VLCC 260K	95.0	▲	15.0	18.8 %

(동향) 중국 리오프닝에 의한 원유 소비 회복세와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운임 대폭 상승

- 금주 VLCC 운임은 지난해 11월 말 이후 처음으로 운임이 10만 달러(3/7: 97,952, \$/day)에 근접하는 등 큰 폭의 상승추세를 나타냄. 중국은 사우디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며, 중동-중국 항로 운임이 대폭 상승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원유 수요 회복세가 시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
- 지정학적 변동성, 글로벌 경기회복 시점 등이 아직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잔존 해있는 가운데, 향후 대 러시아 에너지 관련 제재 파급 효과, 중국 경기회복 속도, OPEC 감산 여부 등에 의한 원유 수급 균형 여부가 유조선 시황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됨

VLCC 중동-중국(TD3C) 운임 및 지수 :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유조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유조선 시장(항로)	구분	3월 2주	전주대비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동-중국 항로(TD3C)	운임지수	99	27	46	99	60	32.4	123.3	63.3
	평균 수익	69,192	17,171	16,766	92,522	34,724	24,517	101,230	16,685
VLCC	1년 용선료	43,750	0	38,000	43,750	40,300	15,000	47,500	25,644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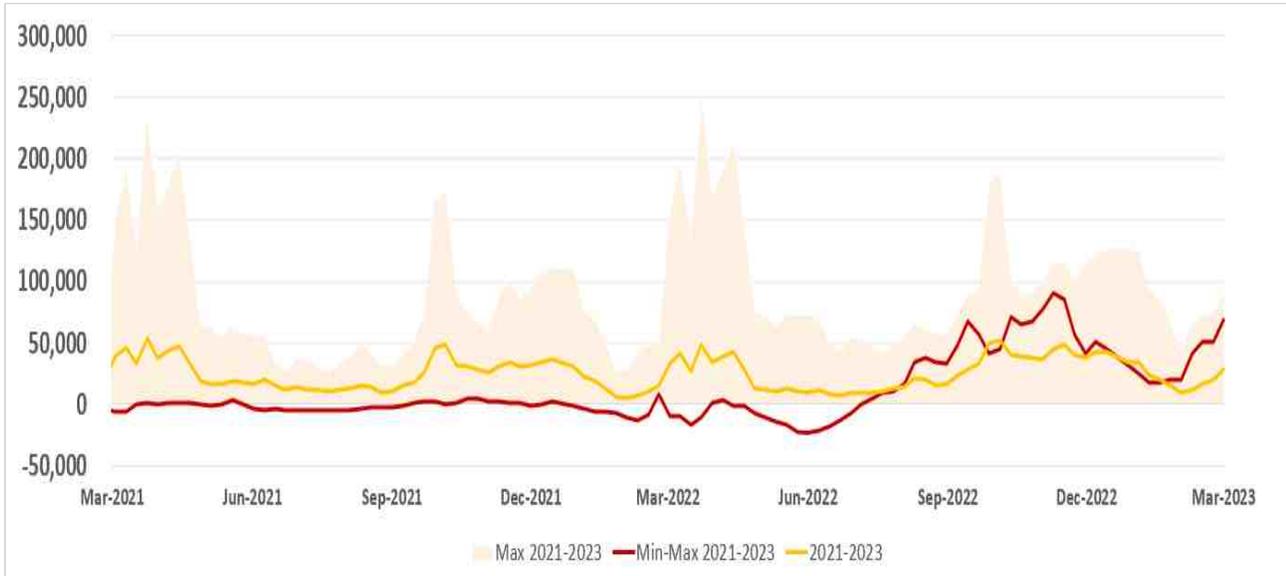


1 유조선-기술분석

수익 추세선은 1월 중순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전주 대비 34.4% 수준으로 대폭 상승함

VLCC 중동-중국(TD3C) TCE(Time Charter Equivalent)

(달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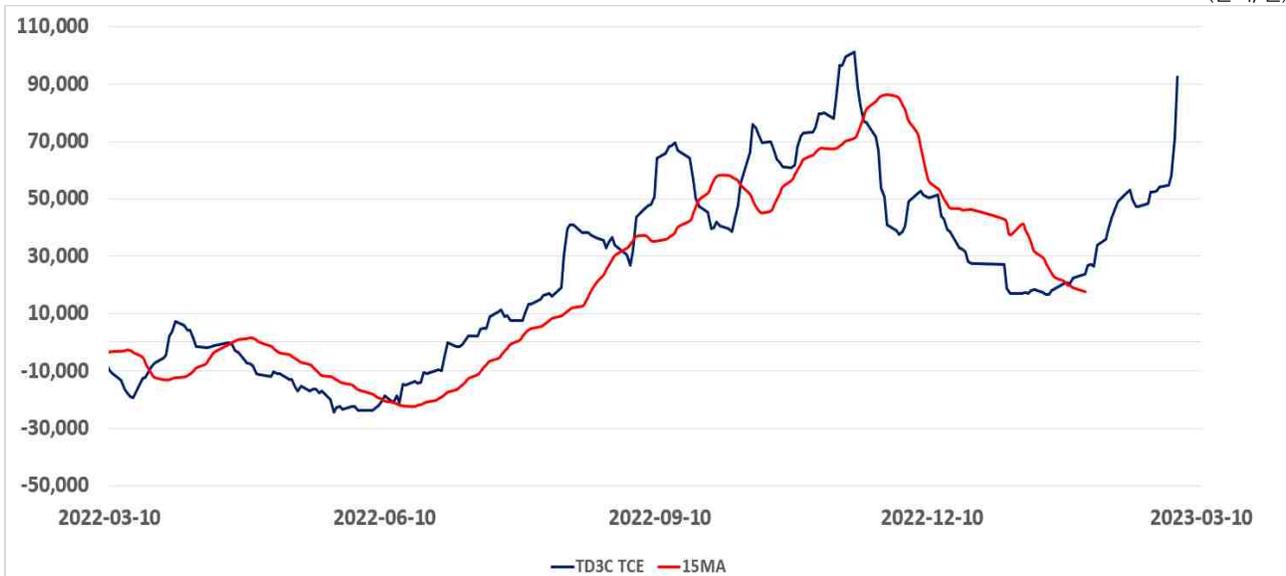


자료: Clarkson

수익 추세선(파란색)은 전주 대비 약 75% 수준으로 대폭 상승함

VLCC 중동-중국(TD3C)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2 석유제품선-동향분석

■ 석유제품선 WS(MR World Scale) : 전주 대비 4.7p 상승한 191.6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상승세를 보임

(달러/톤)

구분	3월 2주(WS)	전주 대비 차이		
인도-극동 항로	191.6	▲	4.7	2.5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75K(LR2형)	190.0	▲	5.0	2.7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55K(LR1형)	200.0	▲	15.0	8.1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35K(MR1형)	200.0	▲	25.0	14.3 %

(동향)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시행, 정제마진 개선으로 제품선 운임 회복 기대

- EIA는 단기에너지전망을 통해 상반기 석유제품의 정제마진 증가, 등유와 경유 생산 극대화 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함.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 진입 이후 인적, 물적 이동과 더불어 휘발유를 중심으로 항공유, 경유 등의 소비가 본격화되며 시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EU가 추진하는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가 오는 4월 1일, 예외없이 적용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정제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제설비 가동률 위축, 중국 내수 수요 회복, 정제설비 정기보수 영향 등이 반영되면서 타이트한 석유제품 수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석유제품선 운임 및 지수



자료: Clarkson

석유제품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3월 2주	전주대비	20223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제품선 시장(현물)									
인도-극동 항로	운임지수	191	4.7	173	266	209	120.1	447.1	277.7
	평균 수익	26,473	6,496	21,713	45,231	34,472	6,216	72,180	38,274
MR	1년 용선료	29,250	250	26,000	30,500	27,575	12,357	30,250	20,570

주: 인도-극동(Pacific Basket) 항로는 4일 평균(월-목) 사용. 전주비도 동일기간 평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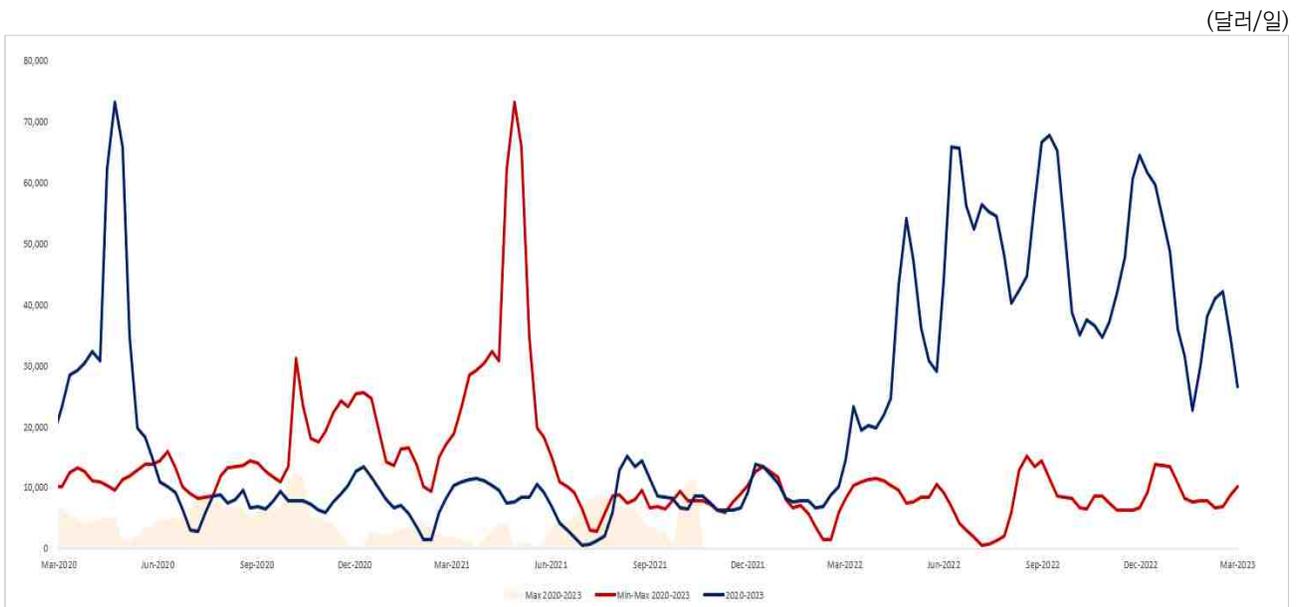
자료: Clarkson



2 석유제품선-기술분석

수익 추세선은 3월 첫째주부터 하락보합세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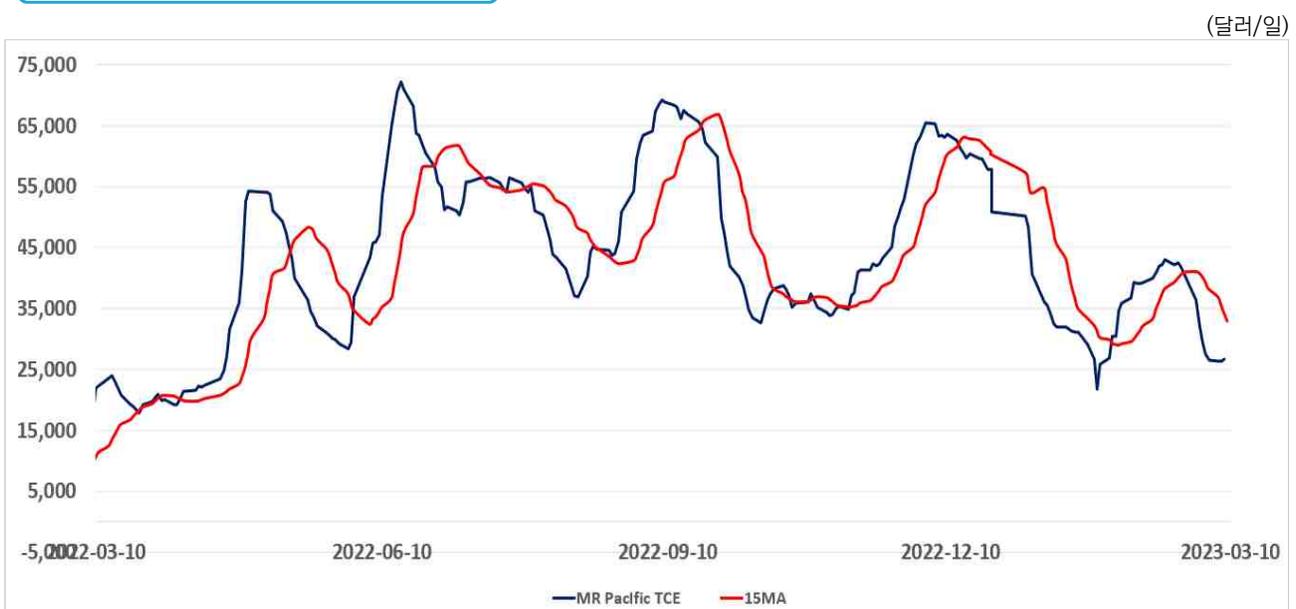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자료: Clarkson

수익 추세선은 2월 말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주와 같이 하락보합세가 이어짐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이동평균(MA)



자료: Clarkson



5. 중고선

1 동향분석

건화물선 중고선가 지수는 24.05로 전주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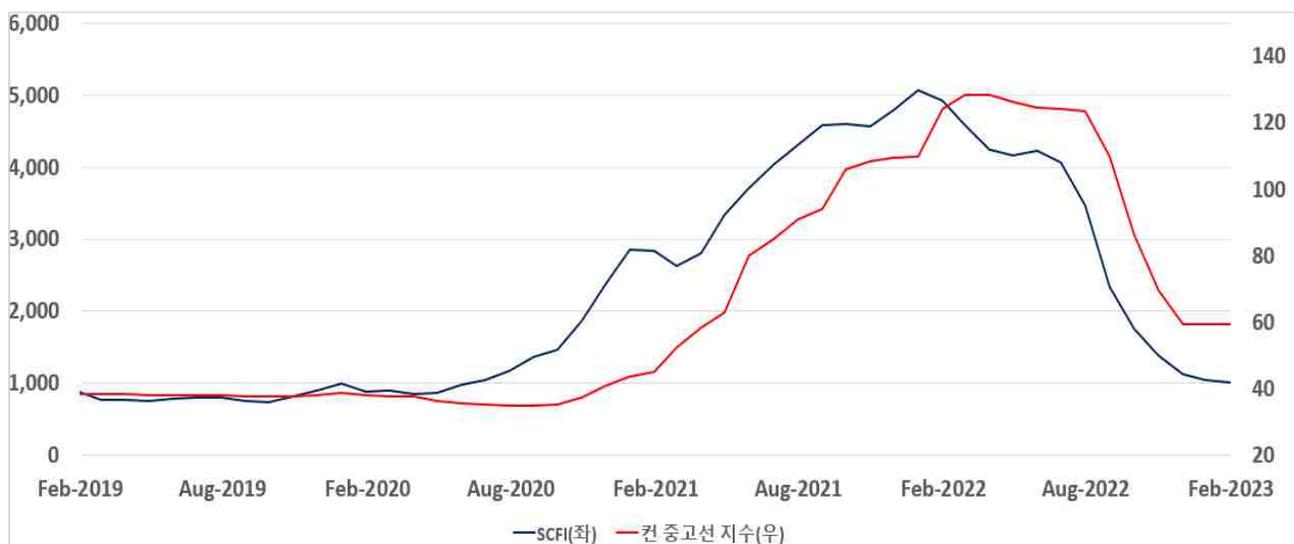
건화물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주: 건화물선 중고선지수는 선형별 5년 중고선가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Clarkson

컨테이너선 중고선가 지수는 57.9로 전월 대비 1.55p 감소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자료: Clarkson



2 거래실적

('23.03.01~'23.03.13)

I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53건의 중고선 거래 발생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Bulk	Ecopacific	2010	57,696	DWT	2023-03-10	14.80	Econav S.A.	Undisclosed interests
Bulk	Glovis Magellan	2013	56,582	DWT	2023-03-10	15.00	Pacific Shipping	Greek interests
Bulk	IVS Pinehurst	2015	57,811	DWT	2023-03-10	23.00	Island View Shpg	Greek interests
Tanker	Kassos I	2007	318,683	DWT	2023-03-10	60.00	Aeolos Management	Undisclosed interests
Tanker	Lila Hong Kong	2003	159,149	DWT	2023-03-10	31.00	Lila Global	Chinese interests
Bulk	Soho Principal	2016	63,229	DWT	2023-03-10	26.30	Raven Capital Mgmt	European interests
Pass./Car	Straitsman	2005	400	Passengers	2023-03-10		Strait Shipping Ltd	Clients of Condor Ferries
Tanker	Yufusan	2005	311,389	DWT	2023-03-10	52.00	Mitsui OSK Lines	Asian interests
Offshore	Lewek Antares	2011	2,900	DWT	2023-03-08	4.30	EMAS Offshore	Clients of Shinxo Energy
Bulk	IVS Sentosa	2010	32,701	DWT	2023-03-06	10.95	Island View Shpg.	Undisclosed interests
Tanker	Seamuse	2007	48,012	DWT	2023-03-06	21.70	Signal Maritime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Jana 71	2014	5,116	DWT	2023-03-03		Jana Marine	Undisclosed interests
Bulk	Elizabeth II	2007	180,184	DWT	2023-03-02	17.50	Tsakos Shpg & Trdg	Undisclosed interests
Bulk	Supra Oniki	2010	57,022	DWT	2023-03-02	13.00	Union Commercial	Undisclosed interests
Gas C'rier	GasLog Athens	2006	145,000	cu.m.	2023-03-01	55.00	GasLog	Clients of Cardiff Marine
Container	GSL Amstel	2008	1,118	TEU	2023-03-01		Global Ship Lease	Clients of Contships Management
Tanker	Sand Shiner	2006	73,727	DWT	2023-03-01	23.30	Prime Tanker Mgmt	Greek interests
TankChem	Tradewind Passion	2008	7,739	DWT	2023-03-01	5.60	Tradewind Tankers SL	Undisclosed interests



6. 주요 해운지표

(2023.03.10 기준)

주요 해운지표 추이	금주	전주 대비	3월 평균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고선가 (\$ Million)									
건화물선(5년) Panamax	-	-	-	-	-	-	18.0	18.0	18.0
유조선(5년) VLCC	100.0	0	100.0	100.0	100.0	100.0	70.0	95.0	80.8
컨테이너선(10년) Sub-Panamax	20.0	0	20.0	20.0	20.0	20.0	21.0	56.0	45.3

자료: Clarkson

신조선가 (\$ Million)									
건화물선 Panamax	-	-	-	-	-	-	33.5	37.0	35.5
유조선 VLCC	120.0	0	120.0	120.0	120.0	120.0	114.0	120.0	117.7
컨테이너선 Sub-Panamax	42.0	0	42	42.0	42.0	42.0	40.0	43.0	42.3

자료: Clarkson

연료유 (\$/Tonne)										
380 CST	Rotterdam	418.0	6	415.0	366.5	418.0	398.6	353.8	688.8	512.3
	Singapore	453.0	2.3	451.9	377.5	453.0	417.5	373.8	773.5	525.8
	Korea	498.5	-0.8	467.7	438.5	476.0	462.8	417.5	784.5	580.8
	Hong Kong	476.3	6.8	472.9	420.8	484.5	458.5	413.8	803.8	554.3
VLSFO	Rotterdam	580.3	9.8	575.4	528.3	599.8	574.0	526.0	980.0	729.0
	Singapore	601.0	-6.8	604.4	589.0	695.3	635.4	598.8	1,137.8	804.2
	Hong kong	609.3	-7.0	612.8	609.3	689.8	644.6	606.0	1,189.3	818.1

자료: Clarkson

주요 원자재가 (\$)										
철광석 (\$/Tonne)	국제價	-	-	-	-	-	-	-	-	-
	중국産	155.4	3.2	154.4	-	162.1	137.4	0.0	194.5	143.0
연료탄 (\$/Tonne)	국제價	128.1	-0.9	128.6	-	132.8	117.3	-	141.3	123.6
	중국産	143.9	-1.1	144.5	-	149.2	131.8	-	192.9	142.3
원료탄 (\$/Tonne)	호주산	-	-	-	-	-	-	-	757.5	146.2
	내륙(몽골)	-	-	-	-	-	-	-	-	-
	중국産	-	-	-	-	-	-	-	529.5	118.6
곡물 (센트/부셸)	대두(국제)	1,507	-11.75	1,512.8	1,471	1,544	1,515	1,344	1,769	1,538.1
	밀(국제)	679.3	-29.5	694.7	665.8	792.0	741.4	729	1,425.3	905.1

자료: mysteel, CBOT,

세계 경제권역별 교역액 (\$ Million)									
		11월	12월	1월	2022년 합계	2021년 합계	2020년 합계	2019년 합계	
ASEAN	수출	10,546	11,248	10,268	10,268	108,50	89,017	95,086	
	수입	5,745	6,556	7,180	7,180	67,703	54,830	56,186	
NAFTA	수출	9,673	10,385	10,426	10,426	11,914	87,821	89,839	
	수입	7,954	6,969	8,319	8,319	87,464	68,263	73,797	
EU	수출	5,299	5,968	5,414	5,414	63,606	47,870	52,758	
	수입	5,059	6,700	5,023	5,023	65,913	55,517	55,795	
BRICs	수출	17,988	18,160	16,049	16,049	193,174	155,346	163,882	
	수입	17,333	17,218	16,498	16,498	170,649	128,653	131,656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
2.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예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발 중인 분석모델의 예측결과로서 제공되는 내용임. 향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임
3. 인공지능 분석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예측결과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이 자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